

김찬삼, 여행가다운 숙명

●●● 어떤 모임에서 내가 음악·문학·미술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매우 야릇한 죽음을 당한 예술가들을 꼬집어냈다. 장미를 끄적이도 사랑한 시인 릴케가 장미 가시에 찔려 죽고 시적이고도 음악적인 명화를 많이 그린 20세기 독일화가 파울 클레는 그림물감의 독소로 죽었으며 바로크 시대의 이탈리아계 프랑스 작곡가 뮐리는 지휘봉에 발등이 찍혀 죽는가 하면 사냥을 즐긴 소설가 헤밍웨이는 자기 업총에 희생되었다는 이야기들이었다.

내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어떤 분이 싱긋 웃으면서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박식하신 선생님도 이것만은 모르실 겁니다”고 끼어들었다. 무슨 이야기일까 하고 모두들 가우뚱거릴 때 그는 “독일의 어떤 유명한 곡예사는 매끈한 담벽을 기어오르는 기막힌 재주를 가졌지만 어느날 하늘을 쳐다보면서 휘파람을 불며 신나게 거리를 거닐 때 어린이가 버린 바나나 껍질을 그만 잘못 밟아 느닷없이 발랑 뒤로 나자빠지는 바람에 뇌진탕으로 숨졌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하는 것이었다.

●●● 그 곡예사의 죽음은 기네스북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매우 숙명적인 죽음이다. 이같이 묘한 죽음을 당한 사실을 찾아보면 꽤 있을 것이다. 내가 몸담고 있는 음악계에 있어서 만도 뮐리가 지휘봉에 찔려 죽었다는 사실과 같은 이야기가 더러 있다. 문학이나 미술에도 있을 것이며 철학이나 과학에도 있을 것이다. 오페라 작곡가 푸치니가 인후암으로 죽은 것도 그 하나가 아닌가!

●●●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여행가 김찬삼씨가 몇해전 중동지역을 여행할 때 어떤 유적지대에서 벽에 호되게 머리를 부딪친 것이 원인이 되어 언어 장애가 와서 말을 전혀 못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건강마저 나빠져서 폐인이 되다시피 한 것이 여행가다운 숙명처럼 느껴진다. 김찬삼씨는 약 40년전에 사귀 절친한 친구인데 나보다 두 살 아래로 올해 만 일흔여섯 살이다. 그는 지리학을 전공하고 역사에도 조예가 깊은데다가 약 150개 나라를 두루 다닌 견문을 기록한 여행기는 한때 베스트셀러였다. 게다가 김찬삼씨는 말재주가 뛰어나서 라디오며 텔레비전을 통하여 구수하고도 재미있는 세계 견문 이야기를 해아릴 수 없이 많이 하여 사회교육으로도 크게 이바지 한 국보적인 여행의 영웅이다. ‘마르코 폴로 세군도(제2세)’라는 찬사를 받던 그가 억울하게도 폐인이되다시피 했으니 친구인 나로서는 너무나도 안타깝다. 유명한 만화가 김용환씨가 한 발을 달에 디디고 있는 김찬삼씨의 모습을 그린 만화를 신문에 내기도 했던만큼 그의 인기는 대단했다.

●●● 이 사진은 약 40년전 내가 그의 친구라고 하여 연속방송의 대담자로서 날마다 그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끌어가던 때의 활기찬 모습이다. 나는 김찬삼씨와 교류하면서 스스로 세계여행을 한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배웠는데 이렇듯 고마운 친구가 여행가다운 숙명으로 폐인이 되다시피 한 것을 통곡하는 것이다.

“

김찬삼씨는 말재주가 뛰어나서 라디오며 텔레비전을 통하여 구수하고도 재미있는 세계 견문 이야기를 해아릴 수 없이 많이 하여 사회교육으로도 크게 이바지 한 국보적인 여행의 영웅이다.
이 사진은 약 04년전 내가 그의 친구라고 하여 연속방송의 대담자로서 날마다 그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끌어가던 때의 활기찬 모습이다.

”



40년전 함께 방송을 하던 때의 모습(왼쪽 김찬삼, 오른쪽 필자)